

관광지 빚장 풀고 5일장 재개장...코로나 극복 경제살리기 안간힘

전남지역 동부권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경제가 고사직전이다.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순천·광양은 지난 2월 말 신천지발 1차 사태 때보다 소상공인들의 충격이 훨씬 더 하다. 한국신용데이터의 8월 마지막 주(24·30일) 카드 매출 현황을 보면 순천지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5.62% 급감했다. 같은

기간 인근 광양지역은 -36.12%, 곡성 -26.46%, 보성 -26.29%, 구례 -21.17%, 여수 -20.92% 등으로 동부권 대부분이 20% 이상 카드 매출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동부권 지자체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고사직전의 소상공인들의 회생을 위해 동네 상가와 시장, 주요 관광지 등의 문을 다시 열었다.

순천만정원·낙안읍성 문 열어

시, 순천만 야시장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



순천만 야시장 조감도.

확진자 속출로 비상이 걸렸던 순천시는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빠진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경제활동의 빚장을 다소 풀었다.

9일 순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역확산에 따라 행정명령을 통해 운영을 제한했던 일부 시설에 대해 지난 5일부터 해제했다. 대상은 중·저 위험시설 및 주요 관광지다. 이에 따라 호프집,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등 순천의 대표 관광지도 문을 열었다.

순천시는 또 동천면 저류지에 조성 중인 '순천만 야시장'을 채운 푸드트럭 운영자를 모집한다. 일반 푸드트럭 33대, 수제맥주 및 전통주 2대, 사회보장(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장애인 등) 10대, 연령 제한(만 19~39세) 5대 등 총 50대이며,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순천시 지역경제과 시장관리팀으로 우편으로 하면 된다.

순천만 야시장은 매년 900만 명의 관광객이 순천을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체류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천면 저류지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내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는 푸드트럭 외에도 플라마켓, 문화공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참돔·우럭 등 수산물 30% 할인

여수시, 소상공인 대출금 전액 보증 시행



여수시가 '서시장주변시장 5일장' 운영을 9일부터 재개했다.

여수시는 서시장주변시장 5일장을 재개장하고 참돔·우럭 등 수산물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여수 수산물 사주기 운동'도 전개한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서시장주변시장 5일장' 임시휴장을 해제하고 이날부터 5일장을 재개한다. 5일장은 팔자리가 4일과 9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지역 농어촌 주민과 인근 상인들이 노점에서 농수산물·의류 등을 판매한다.

당초 여수시와 서시장주변시장상인회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한달간 '서시장주변시장 5일장'을 임시휴장하기로 결정했었다.

여수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여수 수산물 사주기 운동'도 벌인다. 시름에 빠진 지역 어류양식업자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소비자들은 이 기간 동안 반건조진공포장 상태의 우럭과 참돔을 시중가격의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무료배송 받을 수 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은 무료 개방한다. 관람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다.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총 18억원 규모의 대출금 전액 보증도 실시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000만원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다.

대상은 여수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곡성군, 심청상품권 할인 판매

광양시는 여행업체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광양시가 지역 여행업체의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광양 매실 한 상' 투어.

곡성군은 지역화폐인 심청상품권의 특별 할인 판매에 나섰고, 광양시는 시름에 빠진 여행업체 구제를 위해 긴급 지원대책을 내놨다.

곡성군은 다음달 말까지 심청상품권의 10% 할인 판매와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종이형 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 모두 가능하며 1인 구매한도는 월 50만원이다. 법인은 상시 5% 할인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한도는 반기에 1000만원이다.

하루 10만원 이상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1만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심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곡성지역 종이형 상품권 가맹점 940곳, 제로페이 가맹점 844곳 등이다.

광양시는 전남도와 함께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시름에 빠진 여행업체의 홍보마케팅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6월 말 기준 광양에 등록된 여행업체다. 지원 분야는 홈페이지와 SNS 제작·홍보·광고비 등 온라인 부문, 신문·잡지·현수막·배너·전단지 등 오프라인 부문, 기념품 제작, 상품판매 마케팅비 등이다. 사업비 신청은 오는 18일까지이다. 대상업체는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연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군, 내년 신규 시책 봇물...청년상인 단체 육성 등 180건 발굴

곡성군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2021년도 주요 시책 보고회'를 열어 180건의 신규 사업을 발굴했다고 9일 밝혔다.

보고회는 유근기 군수 주재 아래 부서별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부서장은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준비한 신규시책들을 발표했다. 보고가 끝난 뒤 군수와 부군수가 참여해 각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 추진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민참여 활성화 분야에서는 풀뿌리 주민자치 활동가 양성이 눈에 띄었다. 현 정권의 지방분권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추진할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경제와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상인 단체 육성이 대표적이다. 청년 상인들의 젊고 활력있는 에너지를 조직화함으로써 기존 상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동화정원 녹색 썬지슈 조성, 농정 분야에서는 블루베리 공동출하시스템 구축,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위생처리장 이전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이 보고됐다.

곡성군은 보고회에서 오간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후 타당성이 높은 시책은 소요예산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 정부와 전남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매진하기로 했다. 특히 180개 신규 시책 중 35개 사업은 정부의 '한국형 뉴딜'과 접목해 추진할 계획이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코로나19 대응과 침수 피해 복구 등으로 행정력이 분산됐다. 인구 감소·지방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생존의 골든타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다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공직자들의 성과 창출을 독려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유근기 곡성군수 주재로 지난 1~4일 나흘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2021년도 주요 시책 보고회'가 열렸다. <곡성군 제공>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홈페이지,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